

보도 일시	2022. 9. 8.(목) 09:00	배포 일시	2022. 9. 8.(목) 09:00
담당 부서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	책임자	과장 김경화 (044-203-3161)
		담당자	사무관 이종호 (044-203-3167)

##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유치 경쟁 돌입 - 9. 4~7. 아시아축구연맹 현장 실사단 인천, 수원, 화성 점검 순조롭게 마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는 ‘2023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이하 2023 아시안컵)’ 개최국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아시아축구연맹 현장 실사단이 9월 4일(일)부터 7일(수)까지 인천과 수원, 화성을 방문해 대회 준비사항을 점검하였으며, 현장 실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 인천, 수원, 화성의 경기장·훈련장·호텔 등 준비사항 점검

9월 4일(일)에 입국한 아시아축구연맹 실사단 7명은 인천을 먼저 방문했다. 방한 첫날 유치 준비사항 발표를 듣고 호텔을 실사했으며, 5일(월)에는 인천문학경기장과 훈련장 등을 점검했다. 6일(화)에는 화성과 수원으로 이동해 화성종합경기장과 수원월드컵경기장 현장을 점검했다. 이후 7일(수)의 마지막 점검 일정을 끝으로 현장 실사를 완료했다.

실사단은 경기장과 훈련장, 호텔 등 대회를 치르기 위한 시설들을 꼼꼼히 점검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실사단에 개·보수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2023 아시안컵’을 단순 축구대회가 아닌 축구 축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축구 자체의 재미에 더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아시안컵 흥행에도 큰 도움을 주고 축구 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호주의 유치 의사 철회로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해 카타르와 인도네시아 등 3개국이 '2023 아시안컵' 유치 경쟁 중이다. 이번 실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평가보고서와 9월 15일(목)까지 제출하는 후보국의 유치계획서를 바탕으로 아시아축구연맹 집행위원회에서 10월 17일(월)에 '2023 아시안컵'의 개최국을 최종 선정한다.

##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 팀장 '2023 아시안컵 유치 전략 특별전담팀' 구성

아울러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을 팀장으로 대한축구협회와 유관 부처, 외교와 소통 분야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23 아시안컵 유치 전략 특별전담팀(TF)'이 구성됐다. 9월 8일(목) 오후에 첫 회의를 하는 특별전담팀(TF)은 앞으로 유치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시기별·지역별로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유치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